



군종주보

2026년 7월 5일(제1307호)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시제 순교자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가성비 넘치는 시제의 삶”

육군 칠성 성당에 초임으로 와서 눈 감았다가 뜨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여 군종신부로서 전후방 군 본당에서 오늘 첫 주일을 보내시는 군종신부님들의 마음에는 설렘이 클지, 걱정되는 마음이 클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짐 정리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인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익숙지 않은 것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년이 지나면 여유 있고 능숙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신부가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밀려드는 부대와 성당 업무들을 골키퍼처럼 막아내느라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한 것 같고, 가성비 넘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후회하면서도, 그 부족한 가운데 하느님 은총이 자리하심을 느낍니다. 작년 이맘때 훈련병으로 만난 친구들이 이젠 상병을 달고 나름 선임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성당의 꼬맹이들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도 크고 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간부분들과 매번 아이들을 챙겨오느라 고생하시는 간부 가족들도 미사 때마다 성당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저 혼자서는 1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지만, 그 부족함 속에 하느님 은총으로 칠성 성당의 좋은 신자 분들과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죽을 위기를 다 이겨가며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845년 8월 신부

님이 되어, 1846년 9월 순교하기까지 딱 1년을 사제로서 지내시다가 하느님 나라로 떠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9년 가까이 고생해 놓고 1년 만에 목숨을 잃으니, 이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실패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을 훌륭한 삶을 사셨던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값진 길을 걸었던 가성(聖)비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군종 신부님들을 위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자질구레한 업무에 다 지나가 버린 하루였다하더라도, 아무도 없이 혼자 바친 미사였다하더라도, 군종신부로 나아가고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이미 가성비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제로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신자분들께 한국인 최초의 성직자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을 맞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사랑받기에 존재만으로 가성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군종교구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김영인(시도요한) 신부
철성(육군 제7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2역대 24,18-22

회 답 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2 독 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마태 10,17-22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부대 내 신자들과 박 신부의 노력으로 1952년 12월 사단 통신중대장 이객문(알베르토) 대위와 통신병 김윤수(프란치스코) 중사가 영세하였고, 1953년 1월 6일 제1이동외과병원 약재과장 김수형(요한 보스코) 중위가 영세하였다. 1월 19일 제11사단 제9연대 제8중대 교육계 김병상(바오로)은 포성 가득한 최전방 고지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어 2월 10일 적진을 바라다보는 872고지의 중대장 강철(토마스) 대위와 김완동(아우구스티노), 박명항(라파엘), 김사일(미카엘), 김금동(그레고리오), 양성협(시몬) 대위 등이 세례를 받았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군 사목의 성공 여부는 지휘관의 협조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1952년에 제2군단 예하 제6사단은 타 부대와 비교하여 전교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사단장의 배려에 힘입은 바가 컸다. 평양 성모학교 출신으로 서울교구의 윤율수(라우렌시오) 신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사단의 천주교 활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이에 힘입어 송호림(시몬) 제19연대장은 대신학교(현 가톨릭대학)에서 제공한 신심 서적으로 사단 군목부에 도서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4면 프린트판의 <교리문답> 수만 부를 발간 배포하여 출판물을 통한 전교에도 열의를 보이고, 부하 장병들에게 천주교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천주교 신자가 중대 인원의 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신자 중대까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신자 중대는 실전에서 공훈을 세워 사단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6) 군 병원에서의 군중활동

전방 부대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장병들을 집합시켜 교리교육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반면 후방은 전방에 비해 안정되어 있고, 인적·물적 지원이 비교적 원활한 가운데 교리교육이 전개되었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사랑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사랑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사랑일 겁니다. 이리 살아갑니다.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사랑일 겁니다.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지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청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연작

한국전쟁 기간 중에 제작된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님의 생애> 연작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30점의 작품으로, 서양 그리스도교 성화 전통을 한국의 회화 전통과 한국인의 정서로 재해석하여 한국 성화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생애> 연작 가운데 일부를 매주 소개한다.

운보 김기창(1913-2001), 1952~1953년 제작 / 비단에 채색, 76 × 63cm

소장: 청주 김기창미술관 / 이미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ArtePhile



<수태고지>

한복을 입은 성모님과 한국의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녀의 모습을 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그렸다.

동양화 특유의 여백과 부드러운 먹선을 활용해 수태고지의 신비로운 순간을 고요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했으며, 서양 성화의 주제를 한국적 정서와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초가집과 한복 차림의 성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우리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였다.

절제된 색채와 단순한 구도는 시선을 아기 예수님께 집중시키며, 복음이 특정 문화와 민족을 넘어 변방의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임을 드러낸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우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시제 순교자: 해군사관학교 농식집 신부

◆ 교구장 동정

- 백두산(제2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5일(주일)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